

핀테크 업체의 공모펀드 비교·추천 업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.

- 머니투데이, 7월 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머니투데이는 7.4일 「‘네·카·토’ (네이버·카카오·토스)서 공모펀드 가입할 수 있다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내년부터 네이버·카카오·토스 등 핀테크 채널에서 공모펀드를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.”
 - “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규제샌드 박스를 통해 이 같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.” 라고 보도 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핀테크 업체의 공모펀드 비교·추천업무와 관련하여 허용대상 및 시기 등 세부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정책국 자산운용과	책임자	과 장	정선인 (02-2100-2660)
		담당자	사무관	남창우 (02-2100-2664)
			사무관	신용진 (02-2100-2663)